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20주년 기념 행사

2022년 7월 2일(토) 오후4시~5시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1층 교육공학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25호

체육시민연대 성명 · 칼럼

**한국체육대학교는 역도부 학생 폭력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와 2차 가해를 즉각 멈추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스포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스포츠 성별 포용 정책

국제스포츠계, 잇따라 트랜스젠더 여성 출전 제한 조치

김세훈 스포츠경향기자

한겨레 단독보도

“역도부 코치가 폭행” 신고에..한체대 “조용히 처리하자”

이준희 한겨레 기자

체육회 감질논란

전북체육회장 ‘무소불위 감질’ 그 진실은.. “인권유린” 주장 내부폭로

김대홍 프레시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전국체전 · 학생야구대회 등 인권침해 여부 상시 점검

김치연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Civic Network for Justice in Sport

체육시민연대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 스포츠로 행복한 세상 -

- 일시 : 2022년 7월 2일(토) 오후 4시 ~ 5시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1층 교육공학실

✓ 무료 주차

✓ 행사 후 식사(위치 : 교대 항방양육관) 5시 30분

문의 : 사무국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오시는 길

20주년 행사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1층 교육공학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 전화: 02-3475-2114

저녁 식사 장소

“향방양육관 본점”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93 동명빌딩 / 전화: 02-585-6977

보도자료



배 포 2022년 06월 27일(월)

보도일시 2022년 06월 27일(월)

전 화 02) 2279 - 8999

홈페이지 www.sportscm.org

성명서

한국체육대학교는 역도부 학생 폭력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와 2차 가해를 즉각 멈추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스포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한겨레 보도(2022.6.26)에 따르면,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 역도부 코치가 기숙사에서 하키채로 머리를 치는 등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당사자인 코치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인 기숙사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사건 발생 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 측의 대응이다.

한체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대한역도연맹이나 대한체육회에도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역도부 지도교수 등이 나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건을 내부적으로 정리하려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체대는 은폐 시도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사건 합의를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학교가 '체육지도자 등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함'을 규정한국민체육진흥법의 '신고 의무'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학교 측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한체대 자체 기구인 인권센터도 유명무실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산실'이라고 자부하는 한체대는 2020년 6월 당시 핸드볼 선·후배 간의 폭력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보도된 바 있으며, 2021년 10월한체대 교수들 간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조치 부실 논란이 보도된 바 있다.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수많은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들은 대응 과정에 있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왔다.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향후 진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명목으로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번 한체대 사건이 보도된 2022년 6월 26일은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유망주였던 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2주기이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5곳에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사건은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던 故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외침은 여전히 공허하다. 피해자였던 선수가 어느새 가해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 폭력을 대물림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묵과할 수 없다.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일은 '온정주의'가 아닌 '무관용 원칙'이 바로 설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상처는 은폐하면 할수록 굼기 마련이며 밖으로 드러내야 비로소 아물기 시작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스포츠인권연구소는 한체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 하나, 한체대는 사건 은폐 시도와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 하나, 한체대는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한체대는 실효성있는 스포츠 인권교육과 더불어 스포츠인권 증진 캠페인을 실시하라!
- 하나, 교육부는 한체대의 스포츠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체대의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실효성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한체대 학내 인권센터가 유명무실화된 원인을 진단하고, 대학 스포츠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22. 6. 27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스포츠인권연구소

국제스포츠계, 잇따라 트랜스젠더 여성 출전 제한 조치

경쟁은 스포츠에서 핵심 가치다. 경쟁이 공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스포츠에서 경쟁은 다른 분야와 달리 남녀가 구분돼 이뤄진다. 공정한 경쟁이나, 성소수자 보호냐가 스포츠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국제수영연맹(FINA)은 성전환 선수가 여성부에 출전하는 걸 사실상 금지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19일 임시 총회에서 성전환자 중 12세 이전 수술을 받은 경우만 여성부 출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성별 포용 정책'을 채택했다. FINA는 "FINA 대회에서 여성 트랜스젠더의 여자부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이 회원단체 71.5%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고 밝혔다. 후세인 알 무살람 FINA 회장은 "여성 트랜스젠더 여자부 출전 금지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 정책은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 다만 12세 이전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거나 남성으로 사춘기를 보내지 않은 여성 트랜스젠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여성 트랜스젠더는 여자부에 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FINA는 선수, 의·과학계, 법조 및 인권 등 세계 그룹으로 꾸려진 워킹그룹을 신설해 지난해말부터 연구를 진행했다. 성전환자 선수 출전 제한을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시점을 파악해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다. 제임스 피어스 FINA 대변인은 "사춘기 이후 성전환하면 비교우위가 생긴다는 게 과학자들 의견"이라며 "우리도 그들이 비교우위를 갖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어스 대변인은 "물론 이번 정책이 12세 이전 수술을 권장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세계트랜스젠더건강전문가협회는 성전환 최저 권장 연령을 호르몬 요법은 14세로, 수술의 경우 15~17세로 낮춘 바 있다.

여성 수영 선수로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케이트 캠벨(호주)은 FINA 총회 연설에서 "경계선에 있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더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게 안타깝다"면서도 "여성은 스포츠에서 동등해지려고 오래 싸워왔고, 그것은 성별 구별 덕분에 가능했다. 그 구별을 없앤다면 여성 선수에게 해로운 일"이라며 FINA 결정을 지지했다. 반면 성소수자 선수 옹호단체들은 "FINA 결정은 매우 차별적이고 해로우며 비과학적"이라며 "성 정체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공정성과 포용성, 비차별에 대한 IOC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FINA는 트랜스젠더 반발을 예상해 '열린 경쟁 부문' 신설을 제안했다. 실무 그룹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관련 방안을 연구한다. 피어스 대변인은 "(열린 경쟁 부문은) 트랜스젠더 선수를 포함해 모든 선수를 포함할 것"이라면서도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 부문이 어떻게 구성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국제 스포츠단체들은 트랜스젠더 여성부 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는 추세다. 국제사이클연맹은 테스토스테론 허용치를 낮추고 수치 유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세계력비연맹은 2023년 국제대회에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출전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계육상연맹도 FINA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 정책을 강화하리라 예상된다. 세바스티안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스포츠에서는) 포용보다 공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도부 코치가 폭행” 신고에 한체대 “조용히 처리하자”

한국체육대학교가 학내 운동부 코치에게 폭행당한 학생과 그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신고 의무를 명시한 일명 ‘최속현법’(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사실상 조직적 은폐 시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 최속현 선수 2주기(26일)를 맞았지만, 스포츠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최아무개 역도부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최 코치는 한체대 기숙사에서 역도부 소속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하키채로 학생들 머리를 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최씨는 현재 역도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한체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한역도연맹과 대한체육회에도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대신 역도부 지도교수 등이 나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건을 내부적으로 마무리 짓자고 설득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 쪽에선 학교가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체대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조준용 한체대 교무처장은 “학생, 학부모님들과 담당 지도교수가 접촉해서 되도록 합의해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 또한 학교 대표로 학부모님 뵙고 학생들 만나서 되도록 조용히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면서도 “은폐 시도는 절대 아니다. 학생들은 지금 나와서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대응 자체가 은폐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학생들 입장에서선 장래 실업팀 입단을 포함해 스포츠계 활동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지도교수는 물론 교무처장까지 나서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는 일 자체가 사실상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최속현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등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신고 의무’ 원칙이다. 내부 해결을 핑계로 사건을 은폐하는 일이 잦아지자, 외부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이다. 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지도자가 내부 해결을 거론하며 오히려 이미 진행된 고소마저 취하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한체대는 앞서 2020년 6월에도 학내 폭행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았다. 한체대는 당시 핸드볼팀 3학년 7선수가 1·2학년생 등을 때려 특수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대한핸드볼협회 등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협회가 언론 보도를 본 뒤에야 사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피해 학생들은 당시 7선수가 흥기를 휘두르고 뺨, 얼굴, 가슴 등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한체대가 체육계 폭력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은 학교체육진흥법상 관리 대상이 아닌데다, 대학운동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양쪽과 연관돼있어 폭력 문제 관할 주체도 뚜렷하지 않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가해 사실 등을 숨길 경우, 향후 가해자가 다른 곳에서 지도자로 일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으론 대학 내 스포츠 폭력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학운동부 업무를 통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북체육회장 ‘무소불위 갑질’ 그 진실은... “인권유린” 주장 내부폭로

정강선 전북체육회장과 신준섭 사무처장의 무소불위 ‘갑질’이 내부폭로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폭로의 핵심은 민간 체육회 시대로 전환과 함께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서슴없이 자행되는 등 조직안정 대신 줄 세우기를 통한 분열과 갈등을 체육회 수장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내다 정강선 회장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해임처분까지 받은 김승민 전 본부장이 급기야 정 회장의 무소불위 권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전 본부장은 21일 전북체육회관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회장 등이 행해온 사실상의 인권유린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했다.

그는 "20년 전에 발생한 과거 폭력 건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언론사에 제보하고, 경찰서에 형사 고소할 수 있도록 조장·방관했다"며 "더욱이 직권을 남용해 도체육회 규정에도 없고, 인사위원회의 행정적 절차도 없이, 직무정지(3개월 24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 표적감사를 통해 내용도 없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몰아 그 확인서에 서명까지 요구하는 등 초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 등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회장 직권으로 24일 간 업무정지로 손발을 묶어 놓은 것도 모자라 직원들과 인사나 이야기, 심지어 만나거나 식사도 함께 못하게 하는 동시에 사무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체육회를 자신의 사조직처럼 운영해왔다"고 분함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먼저 저로 인해 과거에 상처를 받은 체육회 직원들에게는 거듭 정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하지만 징계 과정에서 벌어진 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갑질은 도를 넘어 인권유린에 가까웠다"고 자성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그는 "레슬링 아시아 챔피언으로 전북의 명예를 드높이고, 32년 동안 체육회에 근무하며 나름대로 전북체육 발전에 힘써온 공훈은 깡그리 무시한 채 저의 명예는 물론,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했다"고 거듭 정 회장 등의 악질 운영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가진 배경에 대해 "전라북도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잘못된 사무처 운영을 바로잡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앞으로 신분보장과 선거로 인한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정 회장 등의 도를 넘은 갑질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에 징계결과와 신분에 대한 회복 여부는 행정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전북체육회는 이와 관련해 "이번 징계는 전북도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인권 전수조사, 자체 특별감사,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면서 "도 체육회는 재발방지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체육환경과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체육회는 또 "오랫동안 체육회에 몸담고 근무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 안타깝지만, 절차를 지키며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인권전수조사에서 해당 본부장과 과장에게 폭행과 폭언, 갑질 등이 있었다는 다수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며 "이후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은 물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해당 본부장의 폭행이 인정된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반박했다.

다음 장 계속



다음은 김승민 전 본부장이 밝힌 2021년 9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주요 과정이다.

1. 작년.9.8 직원 2명(20년전) 폭력건 스포츠윤리센터 민원 제기하면서 시작됨.
2. 본부장(4급)으로 인사위원회의 행정적 절차 무시 및 사유·기간도 불투명하게 체육회장 직권으로 직무정지를 시킨 것은 체육 행정을 주도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봄 : '직권 남용'
3. 직무 정지중인데 직원과 만나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점심식사 같이 한다고 신준섭 처장이 시말서(경위서) 제출요구 : 직위를 남용한 '직장내 갑질'
4. 특별감사(4명중 3명이/7일간)시 김승민 본부장, 양재운 총무회계과장 2명의 업무추진비만 집중 감사 : '표적 감사'
5. 구토와 어지움증(메니에르기병) 쓰러져 병원에 치료중인데 감사 안받는다고 신준섭 사무처장이 시말서(경위서) 작성요구 : 직위를 남용한 '직장내 갑질'
6. 특별감사(7일)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하였다고 근거도 지적 내역도 없이 확인서에 서명 요구 : 진안군청 전)감사계장 출신 / 본회감사
7. 김승민 본부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뒷조사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이모 실장에게 지시했을 것이며, 이것은 조직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됨 : 직권남용, 조직분열 조장
8. 행정적(인사위원회) 절차도 없었으며 업무정지 사유와 시한도 없이 회장 직권으로 3월 24일간 업무정지
9. 제2차 인사위원회(3.29)에서 직장내 폭력, 갑질,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한 소명(1시간 6분)을 했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징계가 이뤄진다면 부당하다고 인사위원들에게 이야기. 징계수위를 결정 못하고 4.5일로 연기됨.
10. 제3차 인사위원회(4.5일)에서 폭력건, 직장내 갑질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5건)에 대해 소명하였으나, '직원폭력, 갑질, 회계질서 문란' 이란 혐의로 '파면' 당함.
11. 2022.4.12 총무회계과장으로부터 김승민 본부장 '파면' 양재운 과장 '해임' 통보 받음.(폭행, 갑질, 회계질서 문란, 상사지시 불이행)

인권위, 전국체전·학생야구대회 등 인권침해 여부 상시 점검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체육 경기대회의 인권침해 행위 발생 여부를 상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최근 '2022년 주요 경기대회 인권상황 점검 모니터링' 용역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인권위는 올해 6~10월 개최되는 7개 대회·20개 종목에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달 열린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이 점검 대상이다.

한 조당 최소 4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들은 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시설·환경, 경기중 폭력행위 등을 점검하며 현장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수집한다.

또 대회에 참석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도 할 예정이다.

단원들은 ▲ 경기장 안팎 시설 환경 및 안전 ▲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 남녀분리 등 숙박 장소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장애인 경기대회의 경우 경기장 진입 시 장애인이 적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비롯해 정보 접근권 보장 여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2019년 실시한 전국 단위의 주요 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요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해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스포츠 인권 개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스포츠 소식

600조 '오일머니' 골프 대회...중동 석유부자들, 왜 스포츠에 거액 배팅하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1915423171349>

전북체육회 고위간부 증징계 결정 두고 정당성 논란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184>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인 인권보호 자정결의대회 등 교육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66805>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인권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627010006115>

스포츠 인권교육...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인권침해 예방 초석 되길 기대"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53>

익산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스포츠 메카 도약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7_0001921397&clD=10808&pID=10800

대전시체육회 '꿈꾸는 펜싱학교 남·여 종목별 동호인대회'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723758>

코로나19로 저하된 체력, 학교체육으로 올린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7500068&wlog_tag3=naver

체육계 한 자리씩 차지한 '대기업 오너'의 명과 암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95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